

시간 흘러 용도 잃은 도심 내 유희시설 재활용에 나선 지역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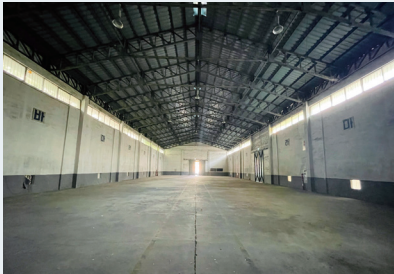
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산업과
2023.10.10.

충청북도 안전정책과
2023.11.19.

경상북도, 노후 산단 내 유희시설을 가족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

경상북도와 구미시가 구미1국가산업단지 내 유희공간인 보세장치장을 가족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. 경상북도는 보세장치장 재활용 계획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해비타트가 주관하는 ‘안심;놀터 사회공헌사업 공모’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. 이는 저출산 극복 등을 목표로 전국 노후 산단 내 유희공간에 거점 육아시설을 구축하고 확산하는 사업이다.

보세장치장은 1980년부터 2015년까지 구미산업단지공단 입주기업의 수출입 화물을 보관하거나 통관을 지원하던 시설로 약 980제곱미터 규모의 창고다. 이번 사업을 통해 보세장치장 B동을 영유아 놀이 공간과 문화 체험 공간, 어린이 독서 공간과 체육활동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.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보세장치장 A동을 음식과 음료(F&B) 중심의 복합문화 여가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, 도는 이와 연계하여 보세장치장 전체를 산업단지 근로자 및 구미시민, 인근 시·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축할 예정이다.



구미 보세장치장
출처: 경상북도. (2023). 구미 보세장치장, 가족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! 10월 10일 보도자료.

충청북도, 빈 총무시설 도심 공간으로 활용 계획

충청북도가 지난 50년간 총무시설로 사용됐던 충북도청 인근 당산 터널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, 이후 복합문화공간 등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. 이는 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‘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’ 시티파크 분야의 일환으로, 도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도청사를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기 위한 사업 중 일부다. 당산 터널은 1973년에 총무시설로 준공되어 전쟁 등 위기 상황을 위한 지휘 시설로 사용되었다. 부지 7,501.2제곱미터, 건축면적 2,156제곱미터로 정문에서 후문까지 길이는 약 200미터 터널이며 폭 4미터, 높이 5.2미터의 아치형 천장 구조로 되어 있다.

도는 총무시설 이전공사 및 구조 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터널의 천장 내벽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강공사를 실시, 11월 17일 보안 구역 해제 심의를 통과하였다. 도는 앞으로 이 당산 터널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연계한 원도심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, 유희공간 관광 자원화를 위해 도민들의 의견 수렴과 기본계획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.



당산 터널 내부
출처: 충청북도. (2023). 충북도, 당산 빈 터널 (舊 총무시설)을 도민의 품으로. 11월 19일 보도자료.